

# 천안문과 홍콩의 항쟁을 기념하는 칼럼

NRA



1945년 8월 15일 중국 인민은 반파시즘 항일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제국주의와 봉건체제에 대한 투쟁을 완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승리를 체감하기도 전, 중국 공산당은 소련 제국주의의 지원을 받아 반인민적, 반혁명적 동란을 일으킴으로서 중국 인민의 피와 살로서 이루어낸 국민혁명의 성과를 탈취하고 말았다.

내전의 패배로 중국 국민당은 타이완으로 천도했으며, 이로서 중국 혁명을 유지하는 중대한 과제는 중국 인민 전체에게 넘겨졌다.

정권을 장악한 중국 공산당은 외형상으로는 신민주주의를 표방하였으나 실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서는 이러한 민주당파들도 투쟁 대상에 포함시켰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명시하였으나 노동계급에 대한 의사를 개선할 방법을 철저히 차단함으로써 실제적인 목적은 인민을 기만함으로서 일당전정의 명확함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에 중국 인민들은 소극적, 적극적인 방법으로 중국 공산당의 독재에 저항하고자 하였다. 즉 중화민국 국군 잔존세력의 저항, 서북 이슬람 소수민족의 항쟁, 티베트 민족의 투쟁, 인민 공사 시도에 따른 사보타주, 제1차 천안문 항쟁들은 중국 공산당의 독재가 중국 인민과 주변 국가의 의사와는 무관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상징이라 할 것이다.

마오쩌둥 사후, 중국 공산당의 부패와 피로는 극에 달했다. 이에 따라 중국 공산당은 1980년대 여러가지 개혁작업을 실시하였으나 그 본질은 엄연히 중국 공산당의 체제 유지에 있지, 인민의 바램을 이룸에 목적을 두지 않았다. 한편 개혁작업에 따라 여러가지 사회문제가 부각되었는데 빈부격차의 심화, 각종 당원들의 부정부패, 강력범죄의 발생, 문화대혁명 시기 청소년계층의 사회불안화, 농민들의 도시이주등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지금까지 온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쌓여진 와중에 인민들의 의사에 동정적이었던 후야오방 총서기의 죽음은 인민의 불만을 기폭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마침내 중국 인민들은 톈안먼 광장을 점거하는 제2차 천안문 항쟁을 통해 사회정의의 이룰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이러한 인민의 의사를 자신들의 전제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여 이들을 참살하였고 오늘날까지도 이에 대한 국내 언론을 금기시하고 있다.

이후 1997년 홍콩이 중화인민공화국에 "반환"되었다. 중국 공산당은 처음 홍콩의 광대한 금융자원 유지, '자유지구(중화민국 헌법이 실효(實效)되는 지역)'과의 관계 증진, 서구 열강에 대한 호의를 사고자 중영공동선언을 발표하며 홍콩 정부에 행정, 사법, 입법을 유지시킬 것임을 약속했으며 홍콩 기본법을 통해 사회주의 제도와 정책은 영구히 시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1949년 그러했듯, 홍콩인들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였으며 직능제로 대표되는 왜곡된 선거제도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홍콩의 규정을 해석할 권한이 주어졌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잠재되고 있었다.

2019년 5월 11일 홍콩 입법회는 범죄인 인도법안을 통과함으로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해당 국가에 인도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당연히 홍콩의 독립성을 크게 침해할 우려가 있었다. 왜냐하면 홍콩의 행정장관이 임의로 해당인물이 범죄자라고 간주하면 해당 인물을 얼마든지 특정 국가로 인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었다. 홍콩의 행정부와 입법부가 친중파에 장악당한 상황에서 이는 홍콩의 명맥만 남은 고도자치의 원칙을 박탈하겠다는 선언과 진배없었다.

이에 홍콩 인민들은 일어나 자신들의 권리를 수호하고자 하였다. 그들이 요구한 것들은 결코 새로운 것들이 아니었다. 1997년 홍콩이 반환할때 중국 공산당이 약속한 "향인치향"의 원칙을 유지할 것을 요구한 것이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과 홍콩 정부는 이러한 원칙에 무장경찰을 투입하여 이들을 저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이러한 홍콩 민중의 정책에 대해서 경찰력을 동원하여 탄압하는 한편 외부 세력이 홍콩인들을 조장시켜 시위를 격화시켰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벌어진 홍콩 항쟁은 2020년 6월 5일인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중국에는 중국 특유의 역사와 문화가 있음으로 외부가 이에 간섭해서는 안될 것이며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혹자는 이렇게 물을지도 모르겠다. 홍콩사태는 외부 세력이 실제로 이에 개입하고 있으며 이것은 중국의 분열과 약화를 획책하고자 하는 음모라는 것이다.

이에 나는 단호히 그것들이 궤변이라고 선언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듯 중국 공산당은 건국 이래 인민의 권리를 수호하고자 한 적이 없었다. 만일 오늘날 홍콩 인민들이 실제로 '하나의 중국'을 거부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거짓과 사기를 일삼은 중국 공산당이 스스로 자처한 결과지, 자신들을 구호하려는 홍콩 인민의 책임이 될 수 없다.

하나의 중국을 부정한다고? 중국인이 만든 삼민주의보다 서구인이 만든 공산주의를 우위에 둔 것이 누구인가? 내전을 일으켜 타이완과 대륙을 분리시킨 것이 누구인가? 임의로 외몽골과 내몽골을 분리시킨 것이 누구인가? 투바 공화국 지역을 몽골에서 분리시킨 게 누구인가? 난칸과 장실포의 영유권을 포기한게 누구인가? 포르투갈이 마카오를 반환하려할때 그것을 거부한 것이 누구인가? 티베트 본토와 시킴 지역을 분리시킨 것이 누구인가? 박롱미도의 영유권을 일방적으로 중단한게 누구인가? 만일 중국이 진정 분열된다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토를 방기한 중국 공산당에 있음은 너무나도 명확하지 않은가?

또한 나는 이것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대결이라는 명제에 반대한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징고이즘(Jingoism; 맹목적이며 배타적인 애국주의)에 기대어 외부세력의 공격이라는 선동으로 체제를 유지하려는 국가자본주의와 수십년동안 금융투기자본에 고통받아온 무산계급들이 연대하는 코스모폴리타니즘(cosmopolitanism; 인류 전체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온 인류가 서로 평등하게 사랑하여야 한다는 주의)의 정신아래 모인 민주사회주의간의 대결일 것이다.

이번 항쟁의 주체는 홍콩 인민들에 있음에 우리 모두가 안다. 설사 그 외부에 개입하려는 자가 있더라도 항쟁의 본질이 흐려지지는 않는다.

이것은 홍콩인들에 국한되지 않는다. 베이징이 무너진 다음에는 홍콩이었고 홍콩이 무너진 다음에는 우리들이 될 것이다. 이것은 결코 다른 이의 문제가 아니다, 홍콩의 다음에는 우리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링크\)](#) 중국 공산당은 처음에는 자신들이 통제하는 지역에서의 자치권을 요구했지만 그 다음에는 중국 전역의 통제권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는 중국의 역사적 영역의 영유권을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가 여기서 중국 공산당을 저지하지 않는다면 저들은 우리들까지 집어삼키고 말 것이다!

물론 나는 약하고 두렵다. 그리고 당신도 홀로 서있는 인간에 불과하다. 하지만 따로 떨어져있는우리들은 혼자지만 홍콩의 이름으로 단결한다면 우리들은 혼자가 아니다! 전 세계의 인류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지금 홍콩의, 무산계급의, 자유의 승리를 갈망하고 있다. 그것은 엄청난 선물이 아닌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할 천부적인 권리이기 때문이며 역사적으로 독재에 맞선 수많은 항쟁의 재현에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홍콩의 사태는 나날이 심각해져가고있다. 2020년 5월 22일 중국인민대표대회는 홍콩 보안법(정식 명칭 :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 안전을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 수립 및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을 통과시켜 마침내 홍콩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려하고 있다. 혹자는 이것이 패배의 징조라고 선부르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하루중 온도가 가장 낮은 때는 태양이 떠오른 직후이며, 한해중 날이 가장 추운 때는 가장 긴 밤을 지낸 직후이다. 중국 공산당의 억압이 나날이 강화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중국 공산당은 더더욱 강압적인 수단을 쓰지 않으면 현행 사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분명한 승리의 징조이며 홍콩인들을 넘어, 중국 인민을 넘어, 온 인류가 그 승리를 향유할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설사 2020년 지금의 항쟁이 패퇴하더라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강압적인 권력으로 유지되는 체제는 극도의 억압을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체제가 장기간 존속될 수 없음은 비스마르크체제와 독일제국이, 레닌-스탈린주의와 소련이 증명해주기 때문이다. 설사 오늘 우리가 패퇴하더라도 그것은 인민의 패퇴가 아니며 승리가 미루어졌음에 지나지 않는다. 저들은 결코 우리를 영원히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도덕적인 우월감때문이 아닌 '모순의 주체가 역사를 발전시킨다'라는 마르크스적 사상에서 기원한 진리이기 때문이다.

홍콩에는 검은 빛이 나돌고 있다. 길바닥에는 붉은 선혈이 낭자하다. 높은 마천루에서는 천민자본주의의 황금이 뿔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낙담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고통을 상징하는 검은 빛은 억압에 반대하는 자유의 갈망이 될 것이고, 붉은 선혈은 사회주의의 이름아래 단결하는 무산계급의 동조의 신호탄이 될 것이고, 투기자본들의 성과물들은 곧 인민에게 귀속되어 자유의 상징이 될 것이다. 그리고 통일과 정의와 자유가 이룩되는 순간이 온다면 마땅히 지구 반대편에서 수십년전부터 지금까지 울려 퍼지고자 했던 그 소리가 우리들에게도 어찌 퍼지지 않을 것인가!

드디어 자유가, 드디어 자유가!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침내 자유로워졌나이다!